

# 전주시, U-20 월드컵 코리아 자원봉사자 발대식

## 최종 선발된 211명 봉사자들과 함께 대회 성공개최 다짐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이끌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숨은 일꾼으로 활약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최종 선발된 211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대회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자원봉사자 모집에 참여한 330여명 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두 차례의 교육을

거쳐 선발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선서식과 위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발대식 이후에는 손수 만든 홍보도구를 활용해 한옥마을 일원에서 U-20 월드컵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홍보활동은 자원봉사자들이 학업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회 홍보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인간 배너 등 홍보도구를 스스로 제작해 봉사자 자신이 대회의 주인이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날 발대식에 참가한 의료 분야 지원자 A씨는 "FIFA U-20 월드컵 대회 전주시 자원봉사자로 선정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라며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활동에 임해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축구도시 전주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최종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유니폼과 함께 자원봉사 참여증서와 활동확인서, 활동기간 식대와 대동교통비 등이 지급되며, 오는 5월 6일 등록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김민근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근 진안군 구봉산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주국유림관리소와 관내 유관기관인 운장산, 덕유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함께 '대국민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연중 발생될 수 있는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산림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아울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시·군에 봄철 산불조심 기간(3.27~5.15)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막바지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김용배 천우에스엔씨 대표, 전북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가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김용배 (천우에스엔씨 대표)가 대학 발전을 위해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전북대 최고위 5기 과정을 수료하며 대학과 인연을 맺은 김 대표는 대학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구축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이에 김 대표는 전북대가 정문과 캠퍼스 내 식재할 나무 등을 기부 받는 '개교 70주년 현와·현수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소중한 마음은 올해 착공하는 전북대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한옥 정문에 얹어질 기와와 교내에 식재될 나무에 새겨져 영원히 남게 된다. 이남호 총장은 김 대표를 대학에 초청해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대표는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발전기금 기탁을 통해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전북대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라는 네임밸류를 높여 지역과 국가의 자랑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정양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 지회장 국무총리상 수상

남원시는 남원산림조합 조합원이자 임업후계자 전북도 지회장인 정양환 지회장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7년도 산림사업 "산림조합발전 유공" 부문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정양환 지회장은 현재 남원시 인접 지리산에 오가피·고로쇠 등 약용수종을 시작으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29ha에 30,000여본의 산약초를 식재하는 등 26년 동안 "잘사는 산촌마을 만들기"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폐경지에 오갈피, 산약삼, 고로쇠, 두릅, 고사리 전매에 대한 뛰어난 임업경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1990년부터 고로쇠 나무 식재·관리 및 수액생산을 시작하였으며, 고로쇠 정제기를 도입하여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로쇠를 생산 판매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 산약삼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임업후계자로 지정되는 등 임업분야의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산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남원산림조합 가입 후 현재까지 조합발전을 위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지역사회 어려움 해결과 조합 발전에 밀려들이 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산림조합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부안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 점검 펼쳐

부안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펼쳐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해 민간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및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며, 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등 민원 민방 지역의 시설에 대해 우선 실시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면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행위에 단속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확립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정읍 입암면민의 날·면민체육대회 성료

제10회 입암면민의 날과 제2회 면민체육대회가 지난 29일 입암초등학교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입암면체육회(회장 이명준) 주관으로 열린 본 행사는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면민, 출향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사물놀이, 라인댄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이어졌으며 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고리결기, 투호, 윷놀이 등 체육행사, 초청가수 공연, 노래자랑 등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치러졌고, 푸짐한 경품과 식사가 더해져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면민의 날을 맞이하여 각 부문별 시상도 진행됐다. 면민의 장에는 최명숙(효향장), 김재호(애향장), 김용철(공익장)씨가 수상했으며 시정발전 유공부문에는 김운순, 정한용씨가 정읍시장 감사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축사에서 입암면은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철도산업특화단지 다원시스가 준공되면 경기 활성화는 물론 정읍인구 15만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무주농협, 농가 주부모임 발대식 개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무주읍,면 별 여성농업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농가주부모임 발대식을 개최했다.



2008년도에 발족하여 그동안 활동을 하여 왔으나, 보다 더 폭 넓은 여성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차 새롭게 재편성으로 농가주부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올해 각종 봉사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으로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을 전파할 계획이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으로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긴급상황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갑작스런 충격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서 주변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생활안전 교육"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완산지사 010-9642-2726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6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팔백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886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신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호지지사 010-8845-9835	익신지사 86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립수목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